보도시점 (전매체) 8. 25.(금) 10:00

전통시장 장금이 결연, 제주까지 확대

- 제주은행, 제주지역 전통시장 5곳과 결연
- 금융 사기 예방 및 상생 금융 등 전통시장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와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'장금이 결연'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.

제주은행은 25일 제주동문재래시장, 동문수산시장, ㈜동문시장, 동문공설시장,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'장금(場金)이*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.

* 시장을 의미하는 '**장(場)**'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'**금(金)**'을 합친 말로서,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**금융**으로 어려움을 **치유**한다는 **의미**를 내포

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'탐나는전'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금 환급(캐시백) 해준다. 아울러, 결연시장 상인이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,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, 결연시장 방문 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운동(캠페인)도 전개할 예정이다.

또한, 현장 이동점포를 개설하여 사기 전화(보이스 피싱)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.

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장금이 결연*이 제주까지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,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.

* 결연 현황 : ①우리은행-서울 광장시장, ②NH농협은행-삼척중앙시장, ③부산은행-부전마켓타운, 부산진시장, 수영팔도시장, ④경남은행-진주중앙시장, 거제고현시장, 양산 남부시장, ⑤광주은행-대인시장, 말바우시장, 순천웃장, 목포자유시장

한편, 금융 기반(인프라)이 부족한 지방까지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금융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'지방중소벤처기업청'과 '금융감독원 지원'도 협력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	책임자	과 장	안원호 (044-204-7890)
		담당자	사무관	장수환 (044-204-78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제주은행-제주지역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행사 개요**

□ 행사 개요

○ **(일시)** ‘23. 8. 25.(금) 10:00 ~ 10:30

○ **(장소)** 제주은행 본점 대회의실(5층)

○ **(참석)** 중소벤처기업부 차관, 금융감독원 부원장,
제주은행장, 제주 전통시장* 상인회장 5명 등

* 동문시장, 동문공설시장, 동문재래시장, 동문수산시장, 서귀포매일올레시장

□ 언론 공개 여부 : 모두 공개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		내용	비고
10:00 ~ 10:20	(`20)	■ 장금이 결연 체결 *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→ 금융감독원 부원장 → 제주은행장	인사말씀
10:20 ~ 10:30	(`10)	■ 현판식 및 기념촬영	
10:30 ~		■ 이동	